

농촌사랑·환경사랑 뜻 깊고 즐거웠다



달리코 또 달린다

6일 '2011 GREEN 자전거축제'에 참가한 선수들이 20여명 노랑게 물들기 시작한 나주시 노안 가로수 길을 달리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시·도민 등 1만여명 참여 가을정취 만끽

'그린 자전거·농촌사랑축제' 성황리 마쳐

광주지역 최초로 열린 자전거와 친환경농산물이 함께하는 '2011 그린 자전거·농촌사랑축제'가 지난 5~6일 광주시 서구 광주상무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광주일보와 광주시, 전남도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사이클클럽, 광주시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대회는 자전거 동호인과 일반 시·도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해 즐거운 가을 주말을 보냈다.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은 5일 개회식 대회사에서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품질이 좋은 농수축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고장이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건전한 레저문화를 정착시키고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도농상생의 분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특히 자전거 대회와 함께 농촌사랑축제장에서 전남 지역 시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이 저렴하게 판매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서부농산물공판장 부스에서는 더덕과 햇땅콩, 곱창김, 돌김, 미역 등 20여가지 농수산물에 판매됐고, 장흥부스에서는 장흥의 명물인 표고 등 10여가지의 무궁해 농특산물이 선보였다. 또 신안에서는 까나리액젓, 새우젓, 홍어 등이, 구례부스에서는 산수유로 만든 엑기스, 장어환, 토종 청국장 등이 판매돼 시민들의 호응을 얻는 등 모두 200여종류의 농수축산물이 시중보다 10~30%가량 저렴하게 판매됐다.

농촌사랑축제 부스 운영과 함께 축제 첫날에는 거북이자전거행진이 열렸다. 가을 주말을 맞아 가족, 연인, 동호인들과 함께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 참가해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 4.5km에 이르는 코스를 1시간여 동안 비경쟁으로 달리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둘째날에 열린 자전거 로드레이싱 대회에는 광주·전남 지역 자전거 동호인 500여명이 참가해 깊어가는 남도의 가을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비가 내린 가운데서도 참가자들은 저마다 힘찬 페달을 밟으며 50km 구간의 코스를 내달렸다.

습기끼게 진행될 질주 경쟁에서 김희성(광산MTB)씨가 1시간16분55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남자 마스터부(만41~50세) 우승과 대회 최고기록을 달성했다. 남자 시니어부(만18~30세) 우승은 김기범(개인), 남자 베테랑부(만41~50세) 우승은 김상일(팀인피자)씨, 남자 그랜드마스터부(만51세 이상) 우승은 노형섭(개인)씨에게 돌아갔다.

여자부에서는 신영란(44·광주무등MTB)씨가 1시간26분43초87의 기록으로 대회 최고 기록과 함께 마스터부 우승을, 김수진(정읍MTB)씨가 베테랑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 광주경찰청, 전남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관광경찰서, 나주경찰서 등에서 후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2011 그린 자전거축제 부문별 순위

■ 남자		
종목	순위	성명 소속
시니어부	1	김기범 개인
	2	김승준 개인
	3	김규운 정읍MTB
	4	강용휘 광산MTB
	5	배상진 나주시자전거연합회
베테랑부	1	김상일 팀인피자
	2	오원용 광산MTB
	3	강용휘 광산MTB
	4	송덕성 피어스/진보르MTB
	5	조훈민 기아자동차자전거동호회
마스터부	1	김희성 광산MTB
	2	조덕형 대전슈퍼바이크
	3	김희권 광산MTB
	4	정원석 개인
	5	정현일 영진MTB
그랜드 마스터부	1	김대주 클럽머드킹MTB
	2	노형섭 개인
	3	김진환 개인
	4	허규태 광주무등MTB
	5	권기수 개인
■ 여자		
종목	순위	성명 소속
마스터부	1	신영란 광주무등MTB
	2	전희정 광산MTB
	3	임정옥 나주시자전거연합회
	4	조현남 광주무등MTB
	5	강경숙 혼자타사
베테랑부	1	김수진 정읍MTB
	2	이정순 나주시자전거연합회
	3	김덕희 첨단MTB클럽
	4	김일지 나주시자전거연합회
	5	김수영 광산MTB

“내년에도 좋은 추억 만들고 싶어”

남자부 최고기록 김희성씨

“비오는 가을,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달린 즐거운 대회였습니다.”

로드레이싱 남자부 최고기록의 영광은 50km 코스를 1시간16분55초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김희성(47·광산MTB)씨가 차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대회에서 팀장으로 광산MTB팀을 이끌며 단체전 우승 2연패라는 쾌거를 이끌어냈던 주역이기도 하다.

30여년 가까이 자전거를 타온 김씨는 “지난해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은 했지만

개인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아쉬웠다”며 “평일과 주말 50km씩 자전거를 타며 연습한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평소 도로를 달리는 것은 쉽지 않은데, 이번 대회는 언덕과 평지, 직선주루가 잘 조화된 코스를 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내년 대회에서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자전거 인구 더 많이 늘어났으면”

여자부 최고기록 신영란씨

“마지막 코스까지 페이스를 잃지 않고 전력 질주를 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여자부 최고기록의 영광은 광주무등MTB 신영란(44)씨에게 돌아갔다. 1시간 26분43초87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한 신씨는 지난해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대회를 앞두고 한 달 전부터 아침저녁으로 40km씩 페달을 밟으며 체력을 쌓았다. 특히 그는 빛고을철인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철인 3종 경기를 즐기는 '여장부'이기도 하다.

신씨는 “평소에도 파워풀한 운동을 좋아해 바다수영과 자전거를 재미있게 즐기고 있다”며 “이번 대회는 날씨, 코스, 대회진행 모두 완벽해 레이스를 즐기기에 좋은 환경이었다”고 말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평소에도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즐기는 그는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데는 자전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며 “광주 지역 자전거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열띤 레이스 중 사고

열띤 레이스를 펼치던 선수들이 서로 엮히는 사고가 발생해 308번 김용강 선수가 입술 부위에 가벼운 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최현배기자 choi@



고소한 햇땅콩 맛보세요

광주서부농산물공판장이 마련한 농·수·특산물 부스에서 시민들이 햇땅콩, 더덕, 다시마 등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신안 꽃게 싱싱합니다

농촌사랑축제를 찾은 시민들이 신안군 부스에서 꽃게를 고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생각보다 어렵네

농촌사랑축제 이벤트로 열린 세발자전거 타기에 참가한 여성이 즐거워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거북이 자전거도 달립니다

지난 5일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거북이자전거행진'에 참가한 선수들이 축포와 함께 레이스를 시작하고 있다. 유제철 광주일보사장·강계두 광주시경제부시장·배용태 전남도행정부지사·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격려의 박수를 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